



## [ PDF Database Document ] - BTCC Cryptocurrency Exchange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financial-investment/what-is-dollar-index>

### 달러 인덱스(DXY, 달러지수)란?그는 코스피, 암호화폐와 어떤 관계인가?

뉴스를 보다보면 달러 인덱스(DXY)라는 용어를 종종 나온곤 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크거나 통화가치가 안정적인 세계 주요 6개국의 통화와 비교하여 미국 달러의 평균가치를 지수화 한 것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한국 코스피(KOSPI)라는 종합주가지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암호화폐와 또 어떤 상관관계입니까?

오늘은 달러 인덱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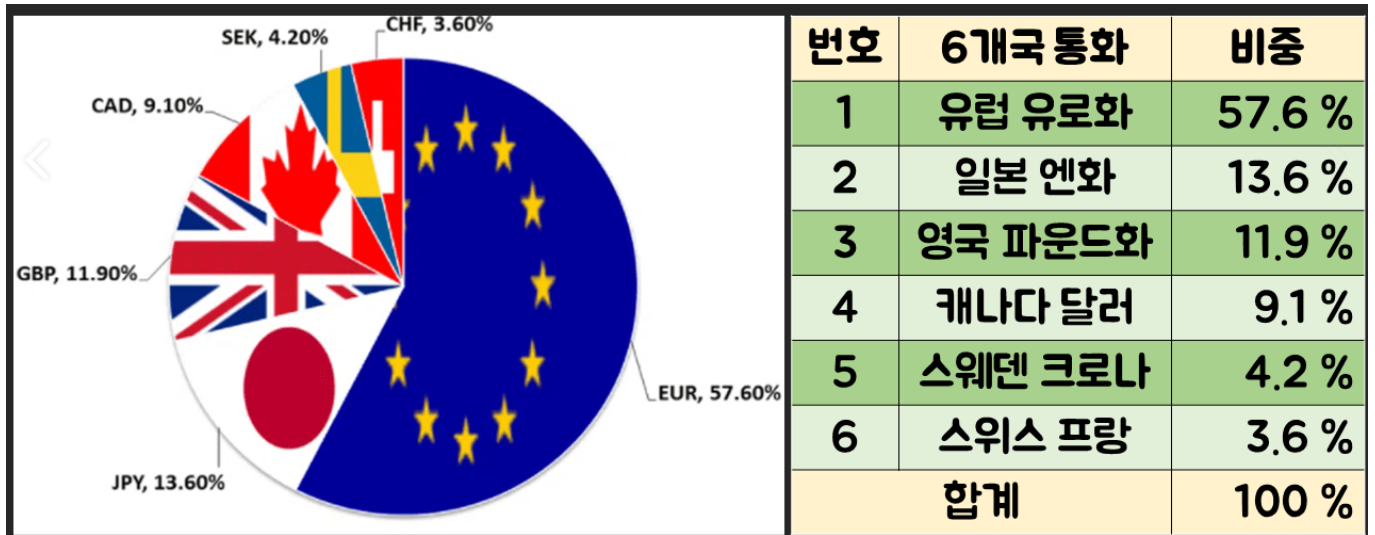
### 달러 인덱스란?

미국 달러 인덱스(U.S. Dollar Index)는 국제 외환 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환율 변화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포괄적인 지표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6개국과 안정적인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로 구성되며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및 스위스 프랑에 대한 미국 달러 가치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를 살펴보면 해당 6개의 통화에 대해 미국 달러가 얼마나 강하거나 약한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세계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지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연방 준비 은행(FRB)으로도 알려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1973년 3월을 기준점인 100으로 하여, 특정 시점에 달러 인덱스가 100보다 높으면 달러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며, 100보다 낮으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의 존재는 미국과 국제 기축통화 간의 환율 변동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각 국가의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가중치도 다르며 유로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엔화가 그 뒤를 잇습니다.



-유로(EUR) 비중 57.6%, -일본 엔(JPY) 비중 13.6%, -파운드 스텔링 (GBP) 비중 11.9%, -캐나다 달러 (CAD) 비중 9.1%, -스웨덴 크로나 (SEK) 비중 4.2%, -스위스 프랑 (CHF) 비중 3.6%

달러 인덱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USD\text{X} = 50.14348112 \times \text{EURUSD}^{(-0.576)} \times \text{USDJPY}^{(0.136)} \times \text{GBPUSD}^{(-0.119)} \times \text{USDCAD}^{(0.091)} \times \text{USDSEK}^{(0.042)} \times \text{USDCHF}^{(0.036)}$$

## 달러 인덱스의 종류

### ICE 달러 인덱스

달러인덱스는 크게 봐서 2 종류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달러인덱스는 대륙간거래소(ICE)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파운드, 유로, 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에 비해 얼마나 달러의 파워가 강해졌는지 조사를 한 것입니다.

### 연방준비제도 달러 인덱스

ICE 달러인덱스에 외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발표하는 달러인덱스도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달러인덱스는 ‘주요선진국 대비 달러인덱스’, ‘신흥 개발국 대비 달러인덱스’, ‘브로드(broad) 달러인덱스’가 있습니다.

#### ▶ 주요 선진국 대비 달러인덱스

유로, 캐나다, 일본, 영국, 스위스, 호주, 스웨덴의 돈에 비해서 달러의 전투력이 얼마나 강한지? 측정한 것으로 ICE 달러인덱스와 비슷한 값을 가집니다.

#### ▶ 신흥 개발국 대비 달러인덱스

세계 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 개발국(19개국)의 돈에 비해서 달러의 전투력이 얼마나 강한지 측정한 것입니다.

#### ▶ 브로드 달러인덱스

세계 주요 26개국(선진 7개국 + 신흥 19개국)의 돈에 비해서 달러의 전투력이 얼마나 강한지 측정한 것입니다.

## 달러 인덱스의 탄생

달러 인덱스는 1973년 3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달러의 금본위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금본위제라는 것은 화폐 단위의 가치와 금의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화폐를 무제한적으로 발행하지 못하게 유한한 금과 가치를 동일하게 만든 것입니다.



$$U\$35 = 1oz$$

이는 화폐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생산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를 무작위로 발행하게 될 경우 화폐 가치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금을 기준으로 화폐의 가치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금과 묶은 이유는 금은 만국 공통으로 인정받는 원자재로 전 세계가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금으로 정한 것이고 금을 화폐로 변환하는 이유는 금을 휴대하거나 매번 가지고 다니면서 교역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금본위제로 묶인 가치는 35 미국 달러 = 금 1온스 (31.1그램)로 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기축통화로서 달러와 금은 동일한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달러의 유통량이 증가되자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가 어려워지면서 미국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겠다는 것을 폐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1971년 8월 15일의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발표한 닉슨 쇼크입니다.

## 국제통화체제 변천사

### 1816년 영국 금본위제 채택

금에 연동해서 통화를 발행하는 고정환율제

### 1879년 미국 금본위제 채택

### 1931년 대공황으로 영국 금태환 정지

금값 급등으로 화폐를 금으로 바꿔주는 것을 중단함

###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탄생

금 1온스=35달러로 고정하고 다른 나라 통화는 달러와 교환

### 1971년 닉슨, 금태환 정지 선언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변동환율제로 전환

### 1985년 플라자 합의

"선진 5개국 재무장관이 달러 가치 억제 유도를 위해 독일 마르크화와 일본 엔화의 가치를 절상하도록 합의"

그리고 금본위제는 종료가 되지만 변동 환율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달러는 지속해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달러가 어떤 기준점으로서의 판단이 되는 지표가 있어야 했는데 이것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 달러 인덱스 알아야 할 이유

달러 인덱스는 달러의 강세와 약세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동적인 화폐입니다. 대부분의 국가 간 상품 거래는 미국 달러를 통해 거래되어야 하므로 미국 달러의 추세는 국제 무역 상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 상품을 달러로 사는 것이 더 저렴해져서 미국 수입에 유리합니다. 또한, 미국 달러의 시세는 다른 나라의 환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각국 화폐 환전할 때 먼저 미국 달러로 바꾼 후 환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달러지수의 변화를 보면 달러 대비 다른 나라의 변화도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 인덱스를 처음 아는 많은 투자자들은 달러 인덱스를 달러 가격이나 환율로 잘못 알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준점인 100으로 하여 6개 외국 화폐의 가치와 비교해 시점별로 환율 관계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달러 인덱스는 6개의 통화와 미국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외에 미국의 금리 정책, 시장의 위험심리, 그리고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 1. 미국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

어떤 국가가 재화와 용역을 수출하게 되면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발생합니다.

무역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이 재화와 용역에 대한 비용을 미국 달러로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미국 달러 지불을 위한 환전 행위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미국 정부 및 대기업이 국채나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만약 해외에서 이러한 채권을 구매하고 싶다면 현지 통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해야만 합니다. 한편, 만약 미국경제가 충분히 건조한 상황이고 미국이 꾸준히 성장세일 경우 해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은 자국 통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주식을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안전자산으로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도 발생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블랙스완 사태 이후 잠시 달러지수가 급등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안전자산으로 기능할 때 자금이 빠르게 유입돼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가 정책 전환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2. 미 연준 금리 정책

금리의 오르내림과 달러화와 관련 있는 논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나라가 금리를 올릴 때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자국 통화 가치를 밀어 올릴 것입니다.

한편,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금리 인하에 의존하여 수요를 부양할 수 있었던 시대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당 국가의 경제 전망은 투자자들의 투자와 자본을 끌어들이 것입니다. 이는 보다 안정적인 경제로 돌아가므로 금리 인상은 가이드라인을 효과를 가져오고 통화 가치가 상승합니다.

## 달러 인덱스의 상승 및 하락은 어떤 의미?

미국 달러 지수의 상승은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미국 달러가 기타 외화로 환전할 때 환율이 상승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요 국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해 미국 거시 경제에는 도움이 도지만 수출산업에 의존하는 일부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가 하락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해지면서 달러에서 자금을 인출해 다른 자본시장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주식을 구입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주식 가격이 상승합니다.

달러 인덱스의 시세를 통해 나라별 통화의 가격 변동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유로화를 예로 들면, 달러 인덱스의 상승과 달러의 상승은 유로화 가치가 하락에 대응하고, 반대로 달러 인덱스의 하락과 달러의 하락은 유로화의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의미합니다.

**달러 인덱스와 코스피 지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달러 인덱스의 추세를 기반으로 코스피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달러 인덱스와 코스피(KOSPI)의 상관관계는?

**달러 인덱스와 코스피 지수는 역의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달러 약세가 진행될 때는 KOSPI가 강세가 되고 달러 강세는 KOSPI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강세입니다. 달러인덱스가 움직이는 모습을 한 번 보면 강세로 갔을 때 우리 코스피는 빠집니다. 달러인덱스가 약세로 갔을 때 코스피가 올라갑니다. 이 모습은 부인할 수 없는 상관관계수였

는데 최근에는 달러인덱스도 멈칫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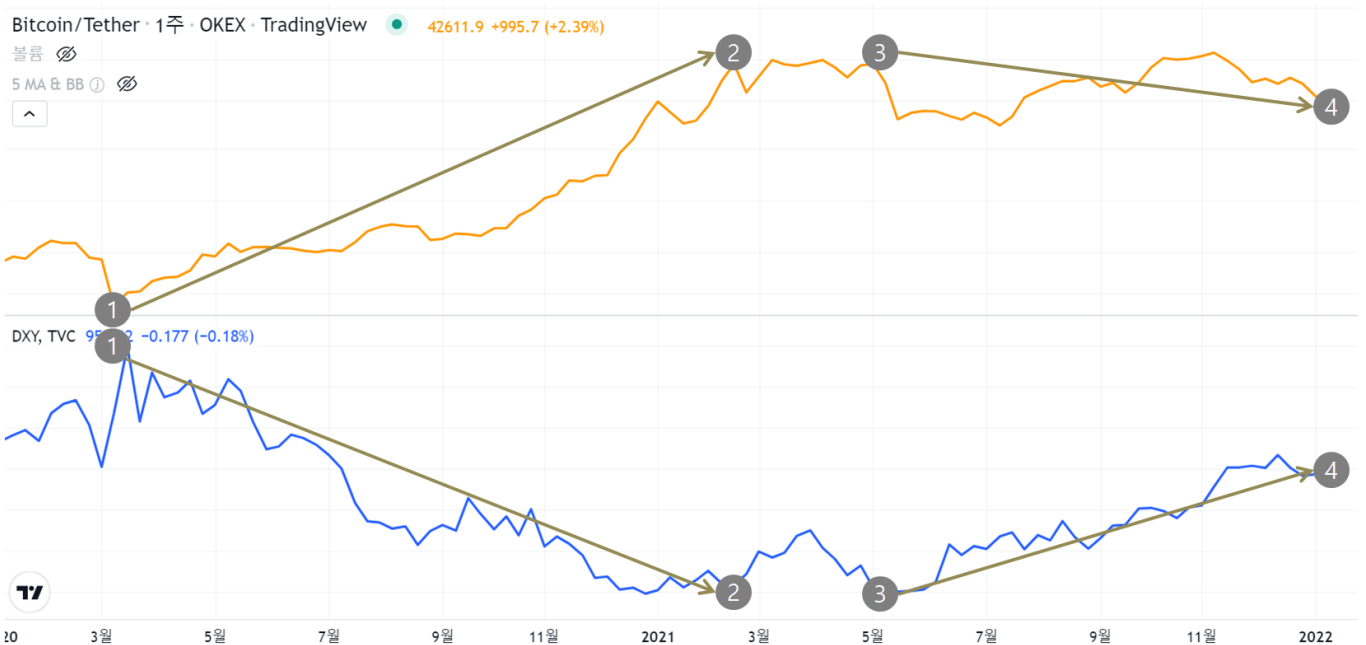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이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달러를 찍어내면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달러화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통합니다.

이 때문에 달러인덱스가 떨어지면 신흥국 주식이나 원유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징후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달러인덱스가 오르면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2009년 이래 달러인덱스와 한국 코스피지수의 그래프를 보면 대체로 역(逆)의 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 달러 인덱스와 암호화폐의 상관관계는?

달러 인덱스와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일반적으로 반대의 경향을 보입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가 강하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강력한 안전자산 수요를 갖고 있고 암호화폐와 같은 신흥 시장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0년 3월~2022년 1월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 시세 비교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상승은 달러화 강세, 하락은 달러화 약세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역사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고 역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1~2: 2020년 3월~2021년 3월. 코로나 이후 미국의 무제한 돈 풀기로 시중에 달러가 엄청 많아지며 달러 인덱스가 100에서 90까지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3,700달러에서 64,00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3~4: 2021년 5월~2022년 1월. 너무 많이 풀린 달러에 대한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논의로 위험자산 하락에 대한 공포가 생기자 달러 인덱스가 90에서 97까지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이는 59,500달러에서 39,600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 결론

달러 인덱스는 세계 주요 6개국의 통화에 대비한 달러화의 평균 가치를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세계 주요 6개국 통화는 유럽 연합의 유로화,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 미국의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의 프랑을 말합니다.

달러 강세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암호화폐와 같은 신흥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암호화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페이지:

[미국 3대 주가 지수: 다우, 나스닥, S&P500 지수 소개 - BTCC](#)

---

더 많은 내용은 BTCC 아카데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BTCC 아카데미**